

한국의 교통수단

대한민국의 총 면적은 9만 9313km²이다.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500km 정도 되며, 자동차로 보통 5시간 이상 소요된다. 사람들은 각 지역을 이동할 때 주로 고속버스나 기차를 이용한다.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고속버스로 약 5시간 정도, 기차로 약 4시간 정도 소요된다. 고속철도인 KTX가 생긴 이후로 지역 간의 이동이 더 용이해졌는데,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시간 정도 걸린다. 제주도의 경우는 배나 비행기로 이동하게 되며, 비행기로 약 50분 정도 소요된다.



서울 시내에서는 일반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한다. 버스와 지하철은 약 천 만 서울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다.



서울시에서는 2004년 버스 시스템을 변경하였는데, 버스를 파란색, 초록색, 빨간색, 노란색으로 나누어 각 버스마다 가는 곳을 달리하였다.

파란색은 서울시의 구와 구를 지나가고, 초록색은 각 구의 세부 지역을 지나가며, 빨간색은 서울과 다른 지역(인천이나 경기도)을 지나가도록 하였다. 그리고 노란색은 한 구 내에서 그 지역을 순환한다.

기본 요금은 900원이며,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800원으로 할인된다. 다만 빨간색 버스는 1400원이다.



교통이 혼잡해서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. 지하철은 전체 8호선이 운행 중인데, 서울시 전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, 인천, 천안까지 연결되어 있다. 요금은 버스와 마찬가지로 기본 요금이 900원이며, 교통카드 이용 시에 800원이다.



교통카드 지하철

표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지하철과 버스는 추가 요금 없이 환승이 가능하다. 다만 주의할 것은 요금이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이다. 일정 거리(12km)가 지나면 요금이 할증되므로, 표를 구입할 때 거리에 맞는 표를 구입해야 한다.

Konu ile ilgili Sözcükler

- 면적
- 지역
- 이동하다
- 고속버스
- 고속도로
- 고속철도
- 일반버스
- 시민
- 세부 지역
- 혼잡하다
- 교통카드
- 비례하다
- 요금
- 구입하다

Tartışma Soruları

- Kore'nin ulaşım ağı
- Metro ve hızlı trenler
- Ulaşım ücretleri

